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자기가 좋아하는 때나 계절이 왔어도, 그에 해당되는 생각과 행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 느끼고 실감도 안 난다.
2. 자기가 소원하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일반적인 삶이 되고 만다.
3. 기다린 성약 천 년 역사가 왔어도, 보통으로 생각하고 살면 신약 시대나 구약시대같이 느끼게 된다.
4. 가령, 자기 생일이나 결혼 날에 잔치를 모두 생략하고 보통 날같이 지내면, 그날이 생일인지 결혼식인지 실감이 안 난다. 그에 해당되게 행해야만 실감하고 살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천 년 역사를 맞은 자도 그러하고, 주를 맞은 자도 그러하다.
5. 하나님이 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만이 시대를 실감하고 기뻐한다.
6. 기다리던 기도 시간이 됐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생각하고 행하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도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없으니 기도 시간 같지 않다.
7.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 일을 못 느낀다. 생각해야, 느낀다.

8. 어떤 일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느냐, 보통으로 생각하고 하느냐에 따라 느낌도 전혀 다르다.
9. 생각은 맛이다. 느낌이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생은 생각으로 살아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10.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흥분되어 살지 않으면, 보람도 기쁨도 못 느끼고 우두커니 정신이 나간 자같이 살게 된다.
11.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고 있어도, 생각에서 잊으면 못 느낀다. 생각이 느낌의 생명이다.
12.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살아야, 그 마음과 생각이 와서 신적 차원으로 느끼고 기뻐 뛰며 살게 된다.
13. 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졌어도, 주와 일체 되어 행하는 자만이 천국을 느끼고 시인하고 살게 된다.
1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옆에 존재하고 계셔도, 자기가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생각 일체 되어 살아야 느껴진다.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